



美, 비스페놀A 함유 플라스틱 판매 축소 월마트 등 대형매장에서 내년 초 철수 예정

세계 최대 규모의 대형 할인매장인 월마트 및 토이저러스, 씨브이에스 등의 유명 체인 스토어에서는 BPA 함유 플라스틱 제품을 대대적으로 판매 축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월마트의 경우 내년 초까지는 BPA 관련 제품을 매장에서 대대적으로 철수시킬 계획을 표명했다.

이는 미 국립보건연구소 연구팀의 연구 결과에 따른 영향으로 보이며,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플라스틱병 속에 함유된 BPA가 사춘기가 조기에 시작되게 하며, 또한 전립선암이나 유방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졌다.

월마트 등 유통업체의 관련 제품 판매 축소 계획은 상술한 미 국립보건연구소 연구결과에 따른 미 소비자들의 우려를 감안해 고객만족을 높이기 위한 친환경 마케팅 정책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2일, 미 오하이오주에서 이미 BPA 함유 플라스틱 젖병 제조사 5개사에 대한 소비자의 법률 소송이 제기된 상태여서, 이런 대형 유통업체들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으며 피소된 주요 제조업체는 Evenflo, Avent America Inc, Handicraft Co, Playtex Products Inc, Gerber Novartis 등이다. 특히, 최근 캐나다 보건당국은 최초로 BPA를 함유한 유아용 플라스틱병 일부의 수입 및 판매 금지 계획을 밝혔으며, 어린이들이 BPA에 조기 노출될 경우 향후 행동장애 증상이나 신경장애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공식적으



로 전했다.

한편 유럽식품안전청(EFSA)은 아기젖병 등 관련 제품에 들어있는 BPA는 미량으로 인체에 무해하다고 밝혀 미국과 캐나다 연구 결과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또 BPA가 아기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신생아는 체중 1kg당 1mg 미만의 BPA를 체내에서 충분히 분해할 수 있고 임부도 BPA를 미리 몸 안에서 분해하기 때문에 출생 전 태아에 미치는 영향 없음을 강조했다. 이런 상반된 연구 결과는 BPA 무해성에 대해 입장을 고수한 미 화학협회(ACC)의 주장과 일치해 유해성 여부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환경호르몬 함유 제품에 대한 유해성 여부 논란과는 상관없이 미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고 환경단체의 적극적 판매 금지 확산 움직임이 있어 향후 BPA 제품 시장은 축소될 전망이다.

현재 가장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시장은 BPA 함유 유아용 플라스틱 젖병, 플라스틱 용기, 플라스틱 물병 시장 등이다.

美, 원산지표기의무화 잠정최종법안 발표

이번 달 30일 효력 발생

미농무성(USDA)이 2002년부터 미뤄오던 수산물 이외의 다른 농산물과 육류원산지표기의무화에 대한 잠정최종법안을 발표했다.

일명, COOL(Country of origin labeling)이라 불리는 이 원산지표기규정은 이번 달 30일부터 효

력을 발생하게 되며 공급업자와 소매상에서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건당 1천불의 벌금을 지불해야만 한다.

2004년 10월부터 이미 자연산 및 양식 어패류에만 적용해오던 원산지 표기는 이에따라 4년만에 소고기와 간고기(송아지고기포함), 어린양, 닭, 염소, 돼지고기, 농산물(냉동포함), 마카다미아넛, 피칸, 인삼, 땅콩까지 적용되게 된다.

미농무성은 가공식품과 관련해 조리, 절임, 훈제와 같이 물리 혹은 화학성분 사용된 제품과 다른 식재료(예, 초콜릿, 빵가루, 토마토소스)를 사용한 가공제품은 원산지표기규정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또한, 식당, 바, 라운지, 카페테리아와 같은 요식업체들도 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알렸다.

미농무성은 그러나, 이번 달 30일 이전에 생산된 제품이나 포장된 제품은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추가로 발표하고 6개월간 동종업계가 새로운 규정을 이행할 수 있도록 교육 및 관련홍보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종잠정법안은 지난 달 1일 관보로 발간됐고 게재후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할수 있다.

칠레, 남극産 럭셔리 생수 출시 예정

내년, 미국 및 유럽 전역 판매

청정지역인 남극 빙하로 제조된 고급 생수가 세계 시장에 출시된다.

칠레업체 파타고니아 생수는 이번 달 미국 뉴욕의 패션위크에서 빙하로 만든 생수를 공개할 예정이



라고 밝혔다.

부유층 고객을 겨냥한 이 생수의 가격은 7백50ml에 35달러(한화 약 3만5천원) 안팎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세계 럭셔리 생수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미국의 블링과 비슷한 수준의 가격이다.

이 생수는 남미대륙의 최남단 캄포 데 이엘로 수르 지역의 빙하로 제조됐다.

남극대륙과 맞닿은 빙하로 생산된만큼 전 세계에서 가장 깨끗하고, 순수한 물이라는 게 업체측의 설명이다.

업체측은 일단 이 생수를 뉴욕과 프랑스 파리의 최고급 레스토랑에만 공급한 뒤 내년부터 미국과 유럽 전역에서 판매할 계획이다.

美, 코카콜라 알루미늄값 급등 절약형 시판 캔 크기 7%가량 줄여

코카콜라가 캔의 원료인 알루미늄 가격 급등을 견디지 못하고 캔 크기를 7% 가량 줄인 절약형 콜라를 시판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콜라 가격은 내리지 않았다.

블룸버그통신은 코카콜라가 캔의 용량을 3백55ml에서 3백30ml로 줄여 홍콩에서 판매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코카콜라는 다른 지역에서도 작은 용량의 콜라를 판매할 것인지 아니면 용기를 플라스틱으로 교체할 것인지를 검토하고 있다.

코카콜라는 알루미늄 가격이 올 들어 25% 상승, 원가 부담이 가중되면서 2분기 순이익이 작년 같

은 기간보다 23% 하락한 53억달러에 그쳤다고 밝혔다.

日, 가공식품 원료 원산지 표시 강화 연내 방향 제시

일본농수성과 후생성이 가공식품의 원료원산지 표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에 들어갔다.

지난 7월 28일에 열린 '식품표시에 관한 공동회의'에서 승인된 내용에 따르면 복수국가의 원료를 혼합 사용한 가공품과 가공식품을 제조한 국가와 사용한 원료의 원산국이 다른 '중간가공품'에 대해 원료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소비자와 사업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후 10월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을 교환하고 올해 안에 방향성을 밝힐 예정이다.

향후 복수의 원산국의 원료를 혼합한 가공식품의 표시는 △ 국가명까지 표시하지 않고 '외국산(수입)'으로 표시 △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를 모두 표시 △ 원산지를 특정할 수 없는 원료는 '특정할 수 없다'라는 표시 등을 제시해 검토하고 있다.

중간가공품은 일본에서 가공되지 않은 경우의 원료원산지의 특징을 어떻게 할지 등을 과제로 삼고 있다.

농수성은 이미 3월에 사업자에 대해 표시의무가 없는 가공식품에 대해서도 임의로 표시하도록 했으나 이번 조치를 통해 더욱 표시를 강화하



려는 것이다.

현재, 가공식품의 원료원산지표시의 의무대상은 20개 식품군에다 4개 품목이다. 단, 다양한 원료를 포함한 가공식품의 경우 일부 밖에 원료의 원산지가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어 소비자로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캐나다, 토론토 페트병 물 판매 금지 추진 오는 11월 발표

캐나다 도시인들이 거리를 나갈 때 한 병씩 들고다닐 정도로 '패션 액세서리'의 하나로 자리잡은 페트병물(생수)이 환경문제 때문에 퇴출 위기로 몰리고 있다.

토론토의 데이비드 밀러 시장은 이날 "페트병물 판매를 금지하려는 다른 중소도시의 정책을 따르는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토론토의 수돗물은 유명 병물 상품보다 더 맑고 안전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의회는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광범위한 대책의 하나로 병물 쓰레기를 몰아내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병물 금지에 관한 토론토시의 방침은 오는 11월 발표될 예정이다.

토론토시의 이런 움직임은 전날 온타리오주 서부 런던시가 시 소유 건물에서는 병물의 판매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한 것에 즉각적으로 반응한 것이다.

런던시는 병물 제조업계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표결에서 15대 3으로 시 소유 시설에서의 병물판매 금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런던에서는 시가 운영하는 수영장 등 운동시설에서도 병물을 판매

할 수 없게됐다.

이밖에 온타리오주 키치너, 오타와, 밴쿠버 시 등이 이런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병물소비량이 급증하면서 환경단체에서는 병물 제조에 쓸데없는 에너지 소모와 유통과정에서 유발되는 대기오염 등을 들어 병물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여왔다.

런던시 관리들은 병물을 생산하는데 같은 양의 수돗물을 만드는 것보다 1백50배의 온실가스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 한 음료업체 조사에 따르면 캐나다인의 1인당 병물 소비량은 지난 1998년 1인당 30 l에서 2005년 60 l로 늘었다.

美, 주목 받는 나노 포장재 안전성 검증 최우선

Helmut Kaiser Consultancy에 따르면, 앞으로 십 년 후면 나노 기술을 이용한 포장재는 세계 식품 포장 시장의 약 25%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시장규모는 약 1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성장 가능성이 아주 높은 시장이다.

현재 나노 기술은 전 산업에 걸쳐 아주 다양하게 응용 또는 적용되고 있고, 포장산업에도 아주 큰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전문가들은 기대하고 있다.

특히 나노 기술을 이용한 포장재 개발은 식품의 안전과 품질을 좀더 효율적으로 보전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단순히 포장산업에 영향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포장·식



품 등 포장을 요구하는 전체 산업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나노기술을 이용해 새롭게 개발된 포장재는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전에, 기능성 외에도 인체에 안전한지 여부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관련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이에 관련 포장재 관련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정부 기관인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와 EPA(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는 적극적으로 나노 기술을 이용한 포장재가 인체에 안전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에 나서고 있다.

일반적으로 식품 포장재 관련 규제는 FDA가 주도적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EPA는 포장재가 식품에 유해한지 여부와 함께 환경에 미치는 영향까지 검토해 규제하고 있다.

나노 기술을 이용해 개발된 새로운 포장재는 기본적으로 기존에 FDA가 포장 재료 관련해 규정하고 있는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FDA의 식품과 접촉되는 포장재에 대한 식품 첨가물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포장재 관련 나노 기술에 대한 기술적인 정의가 필요하다.

먼저 나노 기술을 이용한 포장재 개발은 화학 관련 이슈, 독물학 관련 이슈, 그리고 환경 관련 이슈로 크게 나뉘지고 있다.

화학 관련 이슈는 가장 먼저 나노 포장재에 대한 성분과 성격을 파악해 제품 개발 및 평가에 대한 기초를 마련해야 하며 두 번째로는 포장재 나노 기술을 이용해 포장재를 생산하면서 발생하는 불순물과 생산직원의 안정성에 대한

규정을 정립해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적절한 연구 방법과 증명 방법을 확보해야 한다.

독물학 관련 주요 이슈는 나노 기술을 응용한 새로운 포장 재료가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과 데이터를 구축해야 하며, 이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

환경 측면에서는 새롭게 개발된 나노 기술을 이용한 포장재가 환경과 동물에 무해하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검증 작업이 필요하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미 나노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포장재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많은 제품이 개발되고 있다. 그리고 나노 기술을 이용해 살균 기능을 갖춘 포장 등과 같은 신제품이 개발돼, 새로운 기술이 포장 산업에 대한 패러다임을 변환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부 및 관련 기관은 안전한 포장 재료인지 여부에 대해 실험 평가할 수 있는 기준과 제도 마련을 통해 새로운 시장 활성화에 필요한 가이드 라인을 제공해야 한다.

나노 입자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이 파악돼 있지 않으며, 유익한 것과 해로운 것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아직 정립되지 않고 있다.

나노기술 제품은 초미립자로 표면적이 대단히 넓으므로 반응성이 크게 높아지고 대형 입자가 이를 수 없는 부위까지 손쉽게 도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인체나 환경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한 검증작업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koi](#)